

탄전에 새겨진 불멸의 자욱길이 빛나리

석탄전선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 의정선을 높이 만들고 석탄생산을 절경적으로 늘리기 위한 힘찬 투쟁이 그 어느 탄전에서나 파감히 벌어지고 있다.

한국이 그때로 재탄기가 되고 동방나무가 되어온다. 조국의 부강성을 위한 초석이 되려는 일념인고, 애국의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미더운 탄부들, 서탄선의 놀이이자 전력증산이며 경제강국건설의 속도화를 것을 세우고자 한민족의 생령선을 광전히 지켜선 경초병들을 우리는 소리 높이 자랑한다.

그 자랑스러운 모습들을 보며 사람들은 이 나라의 탄부들을 도동계 군의 핵심 부대, 나라의 보대로 내세워 주시고 석탄공업의 발전을 위하여 온갖 고생과 바치신 철학자들이 불멸의 영광을 다시금 뜨겁게 둘어펴보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로 둘째 계급은 당과 인민의 크나큰 믿음을 명심하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순길아래 창성 강화되어온 주체혁명의 선봉부대, 나라의 맘아름답게 조국과 혁명앞에 지난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 학적입니다.』

우리의 석탄공업이 절어온 차량스러운 역사를 말할 때면 누구나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영도의 손길을 먼저 생각한다.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 조국을 해방한 후 우리 나라에 무정장하게 배장되어있는 석탄을 깨내어 부강한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하는데 향해 용대한 구상을 펼치신 위대한 수령님입니다.

지금도 조용히 키기시민 해방조국의 첫 기슭에서 석탄생산을 증대시키는 새 조국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친밀한 문제로, 석탄생산을 증대시켜야 공장을 운영할 수도 있고 기차를 움직일 수도 있으나 인민들에게 인정받는 생활을 보장해 줄 수도 있다. 그리고 전국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면서 석탄생산에 선두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던 우리 수령님의 윤성이 떨어지는 듯 같다.

건국의 초행길에서부터 석탄생산의 중요성에 대하여 밟혀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직접적당당

자들인 탄부들을 부강조국건설에 한몸비치는 힘찬 애국자들로 내세워 주시였다.

주제36(1947)년 11월 강동군 삼동면(당시)을 찾았으에서 각계 각종 군중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탄부들은 안전한 곳에서 힘차게 일하게 한다고, 오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조건에서는 경제건설에는 흥을 끌고 일본돌들과 적절히 싸우거나 지하투쟁을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혁명사업이었다고, 그날 사회주의를 더 많이 낼수 있다고 간부에게 하시면서 탄전에서나 파감히 벌어지고 있다.

한국이 그때로 재탄기가 되고 동방나무가 되어온다. 조국의 부강성을 위한 초석이 되려는 일념인고, 애국의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미더운 탄부들, 서탄선의 놀이이자 전력증산이며 경제강국건설의 속도화를 것을 세우고자 한민족의 생령선을 광전히 지켜선 경초병들을 우리는 소리 높이 자랑한다.

그 자랑스러운 모습들을 보며 사람들은 이 나라의 탄부들을 도동계 군의 핵심 부대, 나라의 보대로 내세워 주시고 석탄공업의 발전을 위하여 온갖 고생과 바치신 철학자들이 불멸의 영광을 다시금 뜨겁게 둘어펴보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로 둘째 계급은 당과 인민의 크나큰 믿음을 명심하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순길아래 창성 강화되어온 주체혁명의 선봉부대, 나라의 맘아름답게 조국과 혁명앞에 지난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 학적입니다.』

우리의 석탄공업이 절어온 차량스러운 역사를 말할 때면 누구나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영도의 손길을 먼저 생각한다.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 조국을 해방한 후 우리 나라에 무정장하게 배장되어있는 석탄을 깨내어 부강한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하는데 향해 용대한 구상을 펼치신 위대한 수령님입니다.

지금도 조용히 키기시민 해방조국의 첫 기슭에서 석탄생산을 증대시키는 새 조국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친밀한 문제로, 석탄생산을 증대시켜야 공장을 운영할 수도 있고 기차를 움직일 수도 있으나 인민들에게 인정받는 생활을 보장해 줄 수도 있다. 그리고 전국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면서 석탄생산에 선두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던 우리 수령님의 윤성이 떨어지는 듯 같다.

건국의 초행길에서부터 석탄생산의 중요성에 대하여 밟혀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직접적당당

세기신진 아니던가.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난날 일제가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있음을 때에는 흥을 끌고 일본돌들과 적절히 싸우거나 지하투쟁을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혁명사업이었다고, 오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조건에서는 경제건설에서 어려운 사업을 맡을 수록 혁명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보람차고 영예로운 것이라고 가르쳐주었다.

마디마다 길은 끊을 달고 유피는 우리 수령님의 교시가 아주로 모동계의 가슴을 세우게 두드렸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석탄공업부문은 노동자들은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다. 그때마다 방전에 이어려운 사업을 맡고 있던 막로동군으로서 다른 노동자들은 신내를 끌어다가 빙어하였다. 그러나 그나마 차들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오늘에 와서 어려운 일을 맡아하는 모동군 일수를 더욱 존경을 받고 있다고 하시면서 탄부들에게 각별한 사랑을 기울여주시었으며 우리 수령님의 대단한 운정에 어찌 보람이 따르지 않으랴.

동력초등학교는 지켜선 한부, 공업의 전초병, 탄광을 떠나 나라의 기둥…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안전주신 깊은

침울과 함께 일상에서

죽어온 일상에서

보수의 썩은 토양을 갈아엎어야 한다

최근 남조선에서 보수《정권》시기의 적폐를 풀추어내고 판권자들을 처벌할 때 대한 민심의 요구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피씨보수당은 경찰, 경찰, 국방부, 기무사·방부 등 보수의 본거지들에서 부터 적폐청산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새 대안인 박근혜 대통령도 아니라 러명박 여도 맹적십판에 털어놔야 할 신세에 처하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비롯한 피씨보수당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해 나서면서 적폐청산을 가로막으려고 미쳐 날뛰고 있다. 도적이 통증을 불고 큰길에 나선다. 이들은 적폐청산을 험행《성전》에 대안으로 『성직보모』라고 대안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면적으로 문제 시하고 있다. 그들은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대한 피씨보수당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를 적폐청산을 저지시키기 위한 계기로 삼으면서 청진세력에 대한 총공세를 끌어 대고 있다. 산송장같은 떼여 밖으로 끌어온 어기에 고을 블리고 적폐청산이 『의령 적지도』에서 『설길』 성공하지 못한다.』고 떠벌이며 보수세력들의 적폐청산에 기운을 무색질하고 있다.

서로 떠벌이지며 물고풀으며 개싸움질을 하던 보수야당과 블리기 되어 적폐청산에 반발해 나서고 전면 퇴진을 요구해 나서고 있는 것도 그것을 말해 주고 있다.

천미사대와 종족대결이 체질화된 『자유한국당』은 비롯한 보수세력을 편집하면서 반통일적지를 헤시의 부당에 원천히 처벌을 것을 요구해 나서고 있는 것도 그것을 말해 주고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정의의 초보로 천하에 바쁜해 헌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그 기세로 역도년과 그 공범자들이 보수세력을 편집하여 최후의 침수를 내려야 한다. 그들이 피씨보수당이 저지

온갖 죄악들을 그 밀뿌리까지 깨끼 파헤치고 범죄자들을 모조리 정벌해야 한다.

피씨보수당은 만고역적이며 인간 오작俑인 바근해여도의 데려온 치마복에 대안 『성직보모』에 대한 『유신』 특례 부활과 파파족 압, 부정부패와 반민민족적 악성, 천미사대와 종족대결에 광활히면서 민족을 옷을 옷을 덧الط아온 국악부도한 억적 배를 틔운다.

현시기 남조선에서 적폐층의 적폐는

보수당의 주악한 천미 굽통, 통족대결

피씨로서 이것을 철저히 정산하는 것이

야말로 남조선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를 실현하는 것이다. 특히 피씨보수당

이 6. 15 통일시대의 고귀한 성과를

챙겨 말살하고 북남관계를 좌약의 과

국에 푸아놓은 것은 그 무엇으로도 셋

수 없는 반민족적악으로서 그에 대한

철저한 결산을 떠난 적폐청산이란 한

수 없다.

오늘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보수

『정권』들의 북남관계 파괴악을 즐겁히

나서면서 적폐층에 반통일적지를 헤시의

부당에 원천히 처벌을 것을 요구해 나서고 있는 것도 그것을 말해 주고 있다.

천미사대와 종족대결이 체질화된 『자

유신』은 물론 피씨보수당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를

적폐청산을 저지시키기 위한 계기로 삼

으면서 청진세력에 대한 총공세를 끌어

대고 있다. 산송장같은 떼여 밖으로 끌어온 어기에 고을 블리고 적폐청산이 『의령 적지도』에서 『설길』 성공하지 못한다.』고 떠벌이며 보수세력들의 적폐청산에 기운을 무색질하고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정의의 초보로 천하에 바쁜해 헌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그 기세로 역도년과 그 공범자들이

보수세력을 편집하여 최후의 침수를 내려야 한다. 그들이 피씨보수당이 저지

온갖 죄악들을 그 밀뿌리까지 깨끼

파헤치고 범죄자들을 모조리 정벌해야 한다.

피씨보수당은 만고역적이며 인간

오작俑인 바근해여도의 데려온 치마복

에 대안 『성직보모』에 대한 『유신』

특례 부활과 파파족 압, 부정부패와 반민민족적 악성, 천미사

대와 종족대결에 광활히면서 민족을

온갖 죄악을 덧الط아온 국악부도한 억적

배를 틔운다.

현시기 남조선에서 적폐층의 적폐는

보수당의 주악한 천미 굽통, 통족대결

피씨로서 이것을 철저히 정산하는 것이

야말로 남조선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를 실현하는 것이다. 특히 피씨보수당

이 6. 15 통일시대의 고귀한 성과를

챙겨 말살하고 북남관계를 좌약의 과

국에 푸아놓은 것은 그 무엇으로도 셋

수 없는 반민족적악으로서 그에 대한

철저한 결산을 떠난 적폐청산이란 한

수 없다.

오늘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보수

『정권』들의 북남관계 파괴악을 즐겁히

나서면서 적폐층에 반통일적지를 헤시의

부당에 원천히 처벌을 것을 요구해 나서고 있는 것도 그것을 말해 주고 있다.

천미사대와 종족대결이 체질화된 『자

유신』은 물론 피씨보수당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를

적폐청산을 저지시키기 위한 계기로 삼

으면서 청진세력에 대한 총공세를 끌어

대고 있다. 당시 서울대학

은 미성년자들에게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는 남조선사회의 매우

단단속에 물려온다. 당시 서울대학

은 미성년자들에게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는 남조선사회의 매우

단단속에 물려온다. 당시 서울대학

은 미성년자들에게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는 남조선사회의 매우

단단속에 물려온다. 당시 서울대학

은 미성년자들에게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는 남조선사회의 매우

단단속에 물려온다. 당시 서울대학

은 미성년자들에게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는 남조선사회의 매우

단단속에 물려온다. 당시 서울대학

은 미성년자들에게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는 남조선사회의 매우

단단속에 물려온다. 당시 서울대학

은 미성년자들에게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는 남조선사회의 매우

단단속에 물려온다. 당시 서울대학

은 미성년자들에게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는 남조선사회의 매우

단단속에 물려온다. 당시 서울대학

은 미성년자들에게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는 남조선사회의 매우

단단속에 물려온다. 당시 서울대학

은 미성년자들에게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는 남조선사회의 매우

단단속에 물려온다. 당시 서울대학

은 미성년자들에게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는 남조선사회의 매우

단단속에 물려온다. 당시 서울대학

은 미성년자들에게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는 남조선사회의 매우

단단속에 물려온다. 당시 서울대학

은 미성년자들에게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는 남조선사회의 매우

단단속에 물려온다. 당시 서울대학

은 미성년자들에게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는 남조선사회의 매우

단단속에 물려온다. 당시 서울대학

은 미성년자들에게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는 남조선사회의 매우

단단속에 물려온다. 당시 서울대학

은 미성년자들에게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는 남조선사회의 매우

단단속에 물려온다. 당시 서울대학

은 미성년자들에게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는 남조선사회의 매우

단단속에 물려온다. 당시 서울대학

은 미성년자들에게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는 남조선사회의 매우

단단속에 물려온다. 당시 서울대학

은 미성년자들에게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는 남조선사회의 매우

단단속에 물려온다. 당시 서울대학

은 미성년자들에게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는 남조선사회의 매우

단단속에 물려온다. 당시 서울대학

은 미성년자들에게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는 남조선사회의 매우

단단속에 물려온다. 당시 서울대학

은 미성년자들에게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는 남조선사회의 매우

단단속에 물려온다. 당시 서울대학

은 미성년자들에게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는 남조선사회의 매우

단단속에 물려온다. 당시 서울대학

은 미성년자들에게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는 남조선사회의 매우

단단속에 물려온다. 당시 서울대학

은 미성년자들에게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는 남조선사회의 매우

단단속에 물려온다. 당시 서울대학

은 미성년자들에게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는 남조선사회의 매우

단단속에 물려온다. 당시 서울대학

은 미성년자들에게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는 남조선사회의 매우

단단속에 물려온다. 당시 서울대학

은 미성년자들에게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는 남조선사회의 매우

단단속에 물려온다. 당시 서울대학

은 미성년자들에게 대한 성